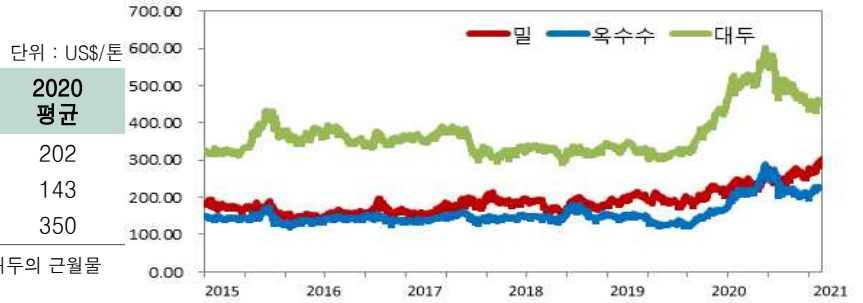


밀 선물가격, 미국 달러 강세로 하락
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'21.11.16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21.10)	2020 평균
밀	297.71	▼1.9%	274	202
옥수수	224.79	▼1.0%	211	143
대두	459.75	▼0.5%	452	35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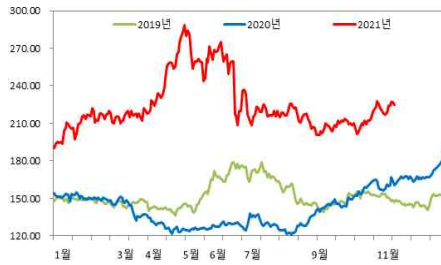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12월, 옥수수 : 12월, 대두 : 1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9% 하락했다. 밀 선물가격은 달러 강세가 미국의 곡물 수출 증가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하락했다.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 상승을 보고 소매 판매를 증가시켰다는 데이터가 나온 후 달러 환율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유럽 상인들은 한국 최대의 동물 사료 제조업체인 농협사료가 6만 5천 톤의 밀 사료에 대한 국제 입찰에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.

옥수수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0% 하락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 시장의 급격한 하락에 압박을 받아 하락했다. 그러나 양호한 수출 수요의 조짐이 손실을 억제했다. 미 농무부는 민간 수출업체들이 2021/22년 마케팅 연도에 27만 톤의 옥수수를 멕시코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
대두 선물시장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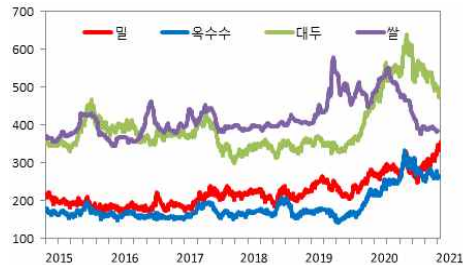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5% 하락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차익실현으로 하락세를 보였다. 수출업체와 가공업체들의 양호한 수요로 인해 하락세가 억제됐다. 미 농무부는 민간 수출업체들이 2021/22년 마케팅 연도에 16만 1천 톤의 대두를 알 수 없는 목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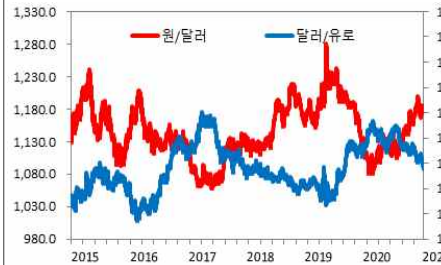
관련동향

- 최근 수출 수요의 배경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두 프리미엄은 미국 선물의 상승으로 약세를 보였고, 밀과 옥수수는 안정세를 유지함.
- 16일 국제유가(Brent 기준)는 독일 Nord Stream 2 승인 연기, 타이트한 수급 등으로 상승하였으며, IEA 미국 생산량 증가 전망 등은 상승폭 제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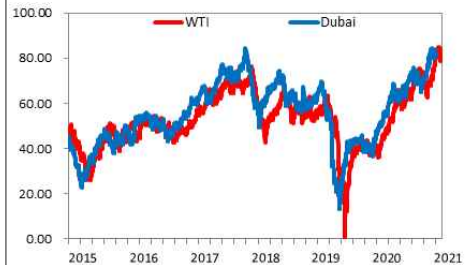
곡물 수출가격 (FOB)



환율



국제유가



곡물수출가격 (FOB)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	
	밀	357	▲1.1%		환율	원/달러	1,180.2	▲0.1%
	옥수수	265	-			달러/유로	1.1371	▼0.6%
	대두	494	▲1.4%		국제유가	WTI	80.76	▼0.1%
쌀	386	▲0.3%	Dubai	81.96		▲1.3%		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은 '21.11.15(수출가격), '21.11.16(환율), '21.11.16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